



인터넷에서 알아보는 에이즈에 관련된 사항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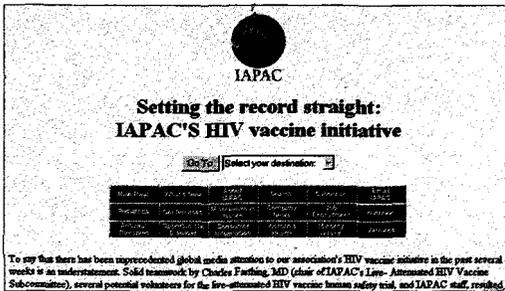
조영환 / 서울중앙병원 약품정보실장

에이즈는 치명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면서, 아직은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활발하게 연구되고 화제의 대상이 되는 분야이다. 공식적인 연구 결과나 치료에 관련된 사항이 연구 보고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새로운 사항을 빠르게 적용시키기 위하여 인터넷에 많은 자료가 올라오고 있으며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연구 결과가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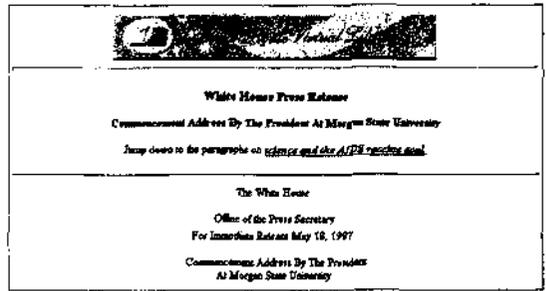
치료와 관련된분야의 의사와 보건분야 전문인 및 백신, 치료제, 및 예방에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이다. 1997년 1월에 회원 수는 세계 42개국에 5,500명이고 년 회비는 \$100이다.

백신에 관련된 질의 응답 사항은 <http://www.iapac.org/vaccines/vaccinefaq.html>에도 자세히 나와있다. 왜 약화생백신의 적용을 시작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체에서부터 유효성이 있는 백신의 종류 그리고 어느 백신의 종류가 적용될 것인가

<http://www.hsph.harvard.edu/Organizations/hai/vaccines/go-ai9705.html>에 나와 있는 사항은 기초과학의 에이즈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으로 에이즈 백신에 관한 사항이 주류인데 이 중에는 미국 콜린턴대통령이 흑인들이 다니는 볼간주립대학(Morgan State University) 학위수여식에서 연설한 내용이 실려 있다. 1997년 5월 18일 발표한 이 연설문에서 과학의 여러가지 발전사항을 거론하면서도 계속 증가하는 에이즈 환자의 수를 우려하고 향후 10년 동안에



www.iapac.org



www.hsph.harvard.edu

www.iapac.org

최근에 화제가 된 에이즈 백신의 인체 실험에 관한 사항은 IAP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hysicians in AIDS Care : 국제에이즈퇴치사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인터넷 주소는 www.iapac.org이다. IAPAC의 회원은 에이즈

가 하는 면에서부터 개발자 및 그 위험성 등에 대해서 보여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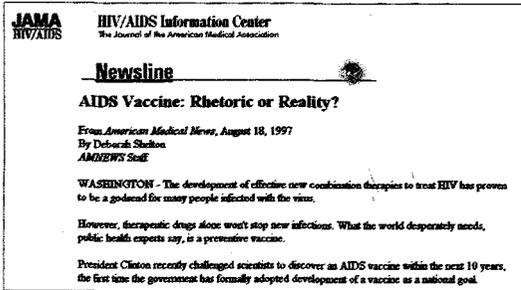
www.hsph.harvard.edu

하바드 에이즈 연구소 (Harvard AIDS Institute)에 보면 4개의 분야로 에이즈에 관련된 기초과학, 임상과학, 전염병학, 사회과학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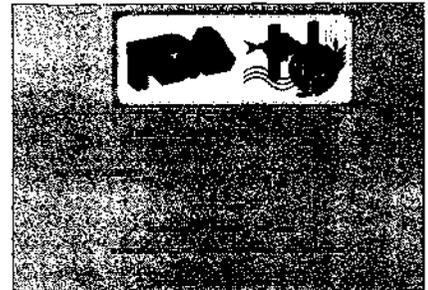
에이즈 백신을 개발할 것을 대통령이 천명한 것이었다.

www.ama-assn.org/special/hiv/newsline/special/amn0818.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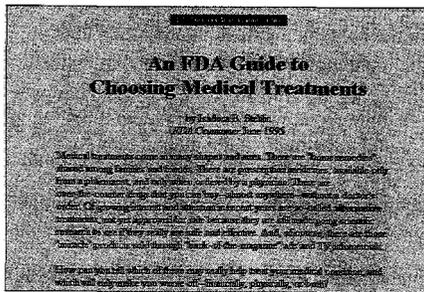
이러한 사항은 예산과도 여러 가지의 관련을 맺고 있다. 미국 의학협회지의 에이즈정보센터의 뉴스라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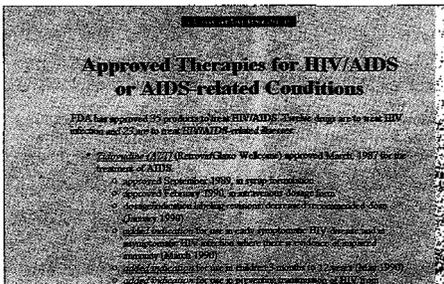
www.ama-assn.org/special/hiv/newsline/special/amn0818.htm



www.fda.gov/oashi/aids/rwtest.html



www.fda.gov/oashi/aids/fdaguide.html



www.fda.gov/oashi/aids/stat..ind.html

보면 1997년 8월 18일자 미국의학 뉴스를 올려놓고 있는데 인터넷 주소는 (<http://www.ama-assn.org/special/hiv/newsline/special/amn0818.htm>) 으로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예산이다.) 미국 대통령은 1998년도에 백신 개발 예산을 현재 전체 에이즈연구비에 10%이던 것을 33%로 증액할 것을 제안하였고 에이즈 전체 연구예산은 9%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치료

부분에서는 4%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는 그간 백신개발비가 적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인가는 증가 비율 만큼에 대한 효과가 불확실하다.

www.fda.gov/oashi/aids/rwtest.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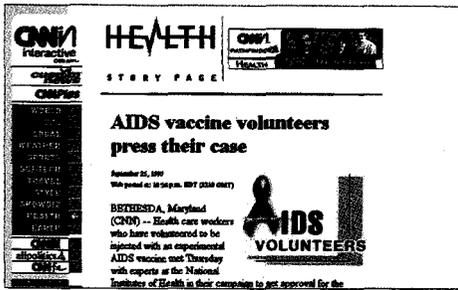
공식적으로 확실한 치료제가 없었던 관계로 에이즈환자는 스스로 치료 방법을 찾아 나서야만 했었는데 이는 당연히 많은 에이즈 치료사기 사건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거론되었다. 1993년 5월 27일 미국하

원에 보고된 내용을 <http://www.fda.gov/oashi/aids/rwtest.html> 에서 볼 수 있다. 몇 가지 사기성 치료제품인 CanCell 및 오존치료법이 물의를 일으킨 것이 있었고 그 외에도 건강식품인 Muskego, Wisconsin의 상품명에 거론되었다. 여기에 대한 사기 방지 지침은 공식적으로 공인된 제품을 전문의의 지도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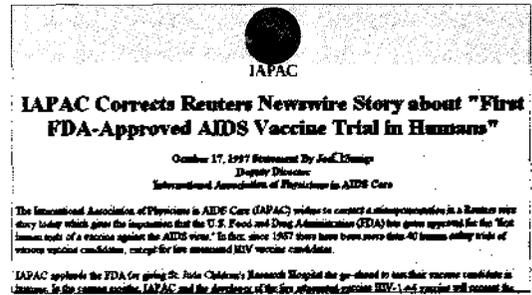
www.fda.gov/oashi/aids/fdaguide.html

난치성 질병에 대한 무력감으로 인하여 대체 요법 (Alternative therapy)이 거론되는 계기를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이는 최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그 작용 기전이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임상실험과 함께 진정한 대체 요법에 대해서는 <http://www.fda.gov/oashi/aids/fdaguide.html>에서 논하고 있는데 몇 가지 질병의 대체 요법은 치료 사기와도 많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대체 요법의 난립은 많은 난치성 질병환자들 엉터리 치료법에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질병을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가능성이 있는 치료제를 최대한으로 빨리 개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신약의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 에이즈 치료제에 대하여는 역사상 유례없이 빠르게 허가가 나오는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첫 번째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 (AZT)은 1987년 3월에 미국 식품의약품처의 신속심사에 의해서 3개월 반만에 허가가 나왔으며 이후 에이즈 치료제는 대부분 6개월 이내에



cnn.com/HEALTH/9709/25/nfm.aids.volunteers/index.html



www.iapac.org/vaccines/reutrcorr.html

허가를 받았다. 에이즈 치료는 이후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의 등장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이전의 어떤 에이즈치료제 보다 강력하게 에이즈바이러스의 증식을 저지하고 질병의 진전을 막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또한 컴퓨터로 화학 구조를 설계하여 합성한 최초의 약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의 단점은 빠른 시일에 내성을 일으킨다는 점인데 이로 인한 내성 발현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이전의 치료제와 병용하게 된다. 여기서 또한 고려해야 할 점은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는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http://www.fda.gov/oashi/aids/sta_app.html)

www.fda.gov/oashi/aids/stat_ind.html

또한 인터넷에는 이러한 치료의 개발의 역사에 관하여도 계속 나와 있으며 현재 개발중인 약과 새로운 적응증을 위한 임상 실험을 하는 부분도 볼 수 있다.

cnn.com/HEALTH/9709/25/nfm.aids.volunteers/index.html

에이즈에 관한 또 하나의 자료는

에이즈에 관한 광범위한 관심과 함께 언론매체에 보도된 기사에 관한 검증 방법이다. 에이즈에 관한 한은 아직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을 알기가 힘든데 그 중간 과정 및 관심 있는 결과가 언론 매체에 보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세계적으로 텔레비전 뉴스 보도를 하는 CNN이다. CNN 뉴스는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나간 자료를 보는 데에도 매우 편리하다. CNN은 의료전문기자를 두고 이를 거쳐 보도를 하고 있는데 백신 개발에 대한 집중 보도 사항은 <http://cnn.com/HEALTH/9709/22/nfm.aids.vaccine/index.html>에 97년 9월 22일 아침부터 방영된 사항이 실려 있다.

9월 25일자 사항은 <http://cnn.com/HEALTH/9709/25/nfm.aids.volunteers/index.html>에 실려 있다. 뉴스는 신속성 및 자료의 비비로 인하여 정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IAPAC에서는 로이터통신에서 백신의 임상실험에 대하여 미국식품의약청으로부터 에이즈에 대한 최초의 인체임상실험의 허가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하여 1997년 10월 17일에 공식적으로 이를 수정하는 자료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약화생백신에 대한 에이즈백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http://www.iapac.org/vaccines/reutrcorr.html>)

많은 경우 인터넷은 상업성을 띄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야는 우선 전공 분야의 자료를 보는 것이 원칙인데, 에이즈에 관한 한은 그 공공성으로 인하여 많은 부분에서 전문적인 자료도 매우 많다. 다만 그 신뢰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신뢰성이 함께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에이즈에 관해서는 많은 자료가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 올려놓고 있다. Yahoo 및 Alta Vista 등의 일반적인 검색엔진에서는 너무나 많은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분야별로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찾아본다. 몇 가지로 항목을 나누어 보는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1) 전문적인 에이즈 연구 기관의 기초적 1차 학술 자료
- (2) 에이즈의 치료제에 관련된 사항
- (3) 에이즈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신문 방송 등의 뉴스, 에이즈 관련 치료 사기 사건 등.
- (4) 에이즈 예방에 관련된 사항 **A**